



□ 인권의 개념

인권(humanrights)이란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문자 그대로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당연히 갖는 권리'이다. 구체적인 인권의 내용과 범주는 사회적 또는 역사적 조건에 따라 다양성을 지닐 수는 있지만, 인권 그 자체는 국가나 실정법 등에 의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되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권리이다.

□ 학생 인권의 개념

학생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이다.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모든 교육적 원리의 전제이다. 또한 학생들은 스스로의 인권 보호뿐 아니라 다른 학생,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자유와 권리의 또 다른 이름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 가. 학생자유권 : 학생이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적인 자기결정을 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나. 학생복지권 : 학생이 아직 발달상 성숙에 이르지 못했고 자기 이익을 추구할 능력도 갖추지 못했으므로 어른으로부터 통제와 보호, 양육,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학생의 권리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권리를 보장해 줄 책임은 부모와 국가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 다. 학생 평등권 : 자유권과 복지권을 성별, 장애, 용모, 종교, 피부색, 나이, 학업성적, 재산, 부모의 직업 등등에 의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학생 인권의 제한

- 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
 - 누구도 타인의 권리를 짓밟을 권리는 없다. (세계인권선언 제30조)
- 나. 타인 배려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실천
 - 합의된 규범 준수의 중요성과 위반 시 책임의 엄격성 인식(인권 교육의 중요성)

□ 가정에서의 인권 교육

가정에서의 인권 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생활 속에서의 형제애, 가족 간의 예절, 나아가 이웃 간의 예절 등이 가정에서의 인권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인권 존중 교육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친인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 상호협력의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인권에 관심을 두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 우리 어린이들이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으리라 믿고 학교에서도 어린이들의 인권 교육에 관심을 두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자녀의 입장이 되어 자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올바른 인권지킴이가 되기 위해 학부모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 우리 가족의 인권 지수

- 부모님께서 체크(✓)해 보시다.

내용(학생용)	체크		비고
	○	×	
1. 가족과 함께하 는 일들이 많다.			※ ○가 몇 개나 되나요? ○ 3개 이하 -인권 지킴이 ○ 4개~7개 -인권 노력이 ○ 8개 이상 -서로 존중하며 더욱 노력해요.
2.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는다.			
3. 아이들의 비밀은 언제나 지킨다.			
4. 부모의 감정 상태에 따라 아이들을 훈육하지 않는다.			
5. 내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 수 있도록 한다.			
6. 아이들의 의사 표현에 귀를 기울인다.			
7. 아이들이 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8. 아이들 앞에서는 부부간에 정중한 언어사용을 한다.			
9. 공부를 잘하 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0. 애들이 뭘 알겠어? 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인권 교육은 시작됩니다.”

1. 주의 깊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말들은 그 내용이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이에게는 중요한 생각이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기 어려운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사소한 이야기를 시작함으로써 자기 의사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표현하기를 배우고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태도를 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2. “오~”, “음~”, “그래”와 같은 반응으로 아이들의 말을 인정해 줍니다.

질문과 충고를 하기보다는 아이의 이야기에 대해 호응하는 간단한 반응만을 보임으로써 아이의 감정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캐묻는 것과 장황한 충고를 받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 아이들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공감한다는 걸 확인시켜 줍니다.

아이들이 슬픔이나 분노 등의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말들에 대해서 “어린애처럼 그게 뭐니?”, “아무것도 아닌 일이니 괜히 울지 마라.”라는 식으로 아이의 감정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신의 기분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속상했구나!” 등으로 공감하는 표현을 해 줍니다.

4. 모든 감정은 수용될 수 있지만 행동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모든 감정을 수용한다고 해서 “난 ○○ 녀석 한 대 쥐어박고 말 거야.”라고 한다고 “그래”라고 반응을 보이라는 건 아닙니다. 아이의 감정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아이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인권 교육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5. 아이들의 격심한 감정 반응에 대해서는 다르게 대처합니다.

상황에 따라 아이가 너무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에는 어떠한 말도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 흐느끼는 아이나 난폭하게 행동하는 아이에게는 아이의 감정을 정리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법이 서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함부로 나무라는 것보다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